

훈센 캄보디아 총리 내외를 위한 만찬사

존경하는 훈센 총리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오늘 저녁, 5년 만에 다시 방한하신 각하 내외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각하의 이번 방문이 우리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 국민들 사이에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20만 명에 이릅니다. 2002년 2만 명에 비해 열 배나 늘어난 것입니다.

특히 우리 국민은 12세기 크메르 인들이 건설한 '앙코르 와트'를 보면서 캄보디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에 경탄합니다.

우리는 또한 각하께서 일으켜 세운 오늘의 캄보디아를 주목합니다. 각하께서는 청년시절부터 목숨을 건 애국투쟁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 해냈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매년 7% 안팎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저는 캄보디아가 머지않아 제2의 앙코르 시대를 열어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,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.

총리 각하,

우리 두 나라가 지금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각하의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. 1997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교의 결단을 내렸고, 이번까지 세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.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에 대한 각하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우리 두 나라의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에 비하면 세 배나 늘어났습니다. 앞으로 협력할 분야는 더욱 많습니다. 이번에 합의한 '크랑폰리 강 수자원 개발사업' 과 '앙코르·경주 문화엑스포' 등도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.

남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아는 남북 화해·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

귀빈 여러분,

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'깜뿌찌어'의 무궁한 발전,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축배를 제의합니다.

감사합니다.